

에스겔 47:13-48:29의 문학적 통일성으로 본 형성사 연구

임시영*

1.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에스겔서의 통일성은 1900년 이후 다양한 도전을 받았다.¹⁾ 단일 저작에 의한 통일성과 포로기 저작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에스겔서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 편집자와 포로 후기 저작에 관한 비평적인 입장과 복수 편집자에 대한 고려와 함께 포로기 내 저작을 주장하는 다소 온건한 입장이 공존한다.²⁾ 비평적 입장과 다소 온건한 입장의 통시적 연구 방법의 결과들이 최종 형태의 에스겔서 이해에 장애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로부터 최근 연구의 경향은 “에스겔서 안에서 주제적 통일성을 모두 인정하는”³⁾ 기반 위에서 있다. 여기엔 또한 두 가지 경향이

*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구약학

- 1)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신학과 선교』 7 (2003), 82; Si-Young, Leem,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 47f,” Dr. Theol. Dissertation (Heidelberg Univ., 2010), 8, 11;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구약논단』 18:2 (2012), 58 이하.
- 2)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82, 83. 에스겔서에 대한 자세한 연구사는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82-107과 Si-Young, Leem,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 47f,” 10-27을 참조하라.
- 3)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84.

존재한다. “에스겔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최종 형태의 본문에만 주된 관심을”⁴⁾ 보이는 입장과 “에스겔서 안에서의 [주제적] 통일성을 편집자의 손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⁵⁾ 입장이다.

이상의 연구의 경향들에 반해 본 논문은 에스겔 47:13 이하가 형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형성이 전체적인 편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침멸리가 주장하듯이 이어쓰기(Fortschreibung)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정도는 전체에 비해 적은 부분에 해당하며, 성장은 앞선 본문의 기본적인 문학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및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에스겔 47:13 이하의 본문이 형성된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과 주제적 통일성이 편집자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것이 형성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유지, 강조되고 있음을 밝힘에 있다.

2. 에스겔 47:13-48:29 분석

에스겔 47:13-48:29의 본문은 두 개의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새로운 경계의 묘사이고, 다른 하나는 땅 분배의 묘사이다. 먼저 본문이 어떤 명확하고 규칙적인 도식 안에서 작성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본문 속에서 가능한 문학 구조 찾기를 시도하고,⁶⁾ 다음으로 그것과 관련하여 문학 비평적인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다.

4)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84.

5)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84.

6) 본문의 문학적 구조 분석을 통한 연구서로는 박호용, 『야웨 인지 공식』(서울: 성지사, 1999)이 있다. 박호용은 에스겔 38-39장의 문학적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본문의 편집사적 연구를 진행한다.

2.1. 전체 본문의 문학적 분석: 서술의 틀

2.1.1.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하나님의 신언 정형구(47:13 $\alpha\alpha$, 23b β ; 48:29b β)

에스겔 47:13, 23 그리고 48:29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관계는 각 구절의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יהוה אמר)나 하나님의 신언 정형구(נאם יהוה)에 의해 드러난다.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땅의 분배 묘사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47:13 $\alpha\alpha$)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언 정형구(48:29b β)로 종결된다. 이러한 틀 구조 안에서 47:23b β 에 있는 하나님 신언 정형구의 부자연스러움이 눈에 띈다. 이 요소는 마치 47:13 $\alpha\alpha$ 의 예언자 신탁 정형구로 도입되어 48:29b β 의 하나님 신언 정형구로 마무리되는 전체 묘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방해하는 듯 보이는 정형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본문은 두 개의 개별 보고를 갖고 있다. 각각의 보고는 47:23b β 에 있는 정형구에 의해 서로 구분된 듯 보인다. 만약 48:1 이하의 묘사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전체 묘사가 보여준 것과 같이 첫 번째 보고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서술의 틀을 인식하게 된다. 새로운 땅의 경계 묘사인 47:13-23은 13 $\alpha\alpha$ 절의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23b β 절의 하나님 신언 정형구에 의해 틀 지워져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두 번째 보고에서는 단지 아랫틀만이 명확하다. 47:23과 48:1 사이에서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이 기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전체적인 틀 구조는 다시 한 번 등장하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에 의해서 깨어졌을 것이며, 전체 묘사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보고들은 하나의 테마 아래 통합되기보다 두 개의 개별 보고로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땅의 분배 묘사 부분(48:1-29)의 윗틀은 전체 본문의 완전한 구조를 위해 생략되었다. 그래서 47:13 $\alpha\alpha$ 에 있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가 생략된 정형구를 대신해서 48:29b β 의

하나님 신언 정형구와 함께 두 번째 보고를 위한 서술의 틀 형성에 기여한다. 47:13 $\alpha\alpha$ 의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는 그래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먼저 전체 본문의 윗틀이 되며, 동시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땅의 경계 묘사 부분의 윗틀, 그리고 땅의 분배 묘사의 윗틀이 된다. 이에 상응하여 48:29 $b\beta$ 의 하나님 신언 정형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정형구는 전체 본문의 아랫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보고의 아랫틀로써 또한 기능한다.

<표 1>

틀: 47:13 $\alpha\alpha$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땅의 분배

틀: 48:29 $b\beta$ נאם אדני יהוה

경계 묘사(47: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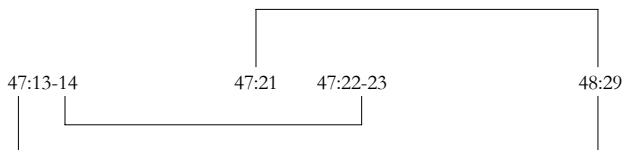
틀: 47:23 $b\beta$ נאם אדני יהוה

땅의 분배 묘사(48:1-28)

2.1.2. 동일한 동사 어근을 가진 단어들의 반복 사용

상용구의 사용과 관련된 관계 외에도 동일한 동사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땅의 수여와 관련된 단어들의 사용이 47:13-14, 47:21-23, 48:29에서 주목된다. נחל는 47:13과 47:14에서 두 번 사용되고, 그것에서 파생된 명사형인 נחלה로 47:14, 22, 23, 그리고 48:29에서 총 다섯 번 등장한다. 동사 נפל은 칼형으로 47:14, 22에서 두 번, 히필형으로 47:22와 48:29에서 두 번 사용된다. 동사 חלק는 피엘형으로 47:21에서 한 번, 그리고 파생된 명사형인 מחלה로써 48:29에서 한 번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절들 외에는 이 세 동사의 어근은 47:13-48:29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표 2>



47:13-14와 48:29는 단어 사용에 있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47:13 이하에서 세 번 사용되고 48:29에서 다시 받아들여진 동사의 어근 **לנ**과 각각 한 번 두 구절 모두에서 사용된 동사의 어근 **נל**이 이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앞서 살핀 정형구에 의해 형성되는 서술의 틀 구조에 상응한다. 47:13 이하에서 세 번 사용되었고 47:22 이하에서 세 번 다시 등장하는 동사 어근 **לנ**와 47:13 이하에서 한 번, 47:22 이하에서 두 번 사용된 동사 어근 **נל**의 반복 사용은 47:13-23에서 발견된 첫 번째 서술의 틀 구조(첫 번째 내부 틀)를 또한 증언한다. 동사 어근 **לנ**과 **נל**은 47:15-20의 경계 묘사를 감싸는 단락에서 사용되어 내용적 뼈대와 구조적 틀을 형성한다. 여기서 47:21은 매우 독특하다. 동일한 단어의 사용에 관한 관찰에 따르면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를 요청하는 47:21은 첫 번째 내부 틀 밖에 놓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47:21은 단지 48:29와 단어적으로 연관되며, 내용적으로도 48:1-29에서 언급하는 땅의 분배와 병행되기 때문이다. 47:13-48:29에서 동사 어근 **לנ**(나누다)는 단지 47:21과 48:29에서만 사용되었다. 그 외에 21절은 어떤 다른 단어적인 관계를 다른 절들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음의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48:1-28에 있는 실제적인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는 그와 관련된 동사 어근 **לנ**를 사용하는 47:21과 48:29의 틀 속에 놓여 있다.

2.1.3. 문체적인 관계

경계 묘사(47:15-20)와 땅 분배 묘사(48:1-7, 23-28)는 거의 명사 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⁷⁾ 그에 반해 상기 내용들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문장들은 항상 동사 문장들이다.

<표 3>

47:13-14	동사 문장 부분
47:15-20	명사 문장 부분(경계 묘사)
47:21-23	동사 문장 부분
48:1-7	명사 문장 부분(북쪽에 놓여 있는 지파 지역)
48:8-22	동사 문장 부분(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Weihgabe)
48:9-28	명사 문장 부분(남쪽에 놓여 있는 지파 지역)
48:29	동사 문장 부분

위의 표는 명사 문장으로 이뤄진 본질적인 두 보고가 동사 문장 부분에 의해서 틀 지워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⁸⁾

2.1.4. 내용적 관계

(1) 외부 틀(47:13과 4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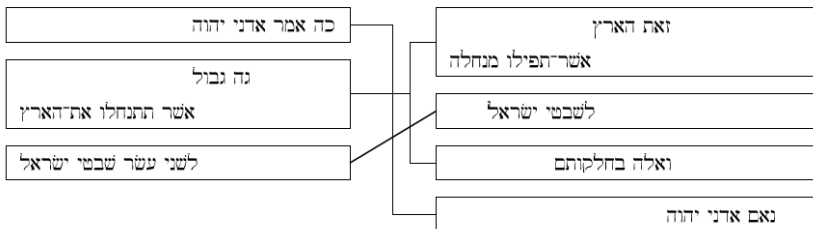
야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땅의 수여라는 주제는 야웨에 의한 땅의 분배를 확약하고 있는 47:13a⁹로부터 이끌어진다. אֲשֶׁר תַּחְנוּלוּ אֶת־הָאָרֶץ(47:13)라는 표제어 아래서 이 땅의 경계와 지파들의 기업이 서술된다. 동사 어근 נָחַל은 이러한 표제어의 특색을

7) 예외: 47:17; 48:1, 8-22, 28.
8) 여기서 48:8-22 부분은 예외다. 이 부분은 후기의 첨가로 이해된다.
9) אֲשֶׁר תַּחְנוּלוּ אֶת־הָאָרֶץ는 47:13a⁹로 수정되어야 한다. 47:13a⁹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칠십인역의 ταῦτα τὰ ὅρια, 불가타의 *hic est terminus*, 탈군의 דִּין תְּחֻמָּא, 그리고 몇몇의 Mss에 따라 נָחַל נָחַל 대신에 נָחַל נָחַל로 고쳐 읽을 것이 지지된다. 또한 47:15와도 비교하라.

드러낸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문학 구조에 있어 47:13과 관련되어 있는 48:29는 47:13로부터 시작된 본문의 주제인 ‘야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의 수여’를 다시 한 번 확약함으로 종결한다. 그래서 48:29(זאת הארץ אשר תפילו מנחלה¹⁰ ... ואלה מחלקותם)은 전체 본문의 결말일 뿐 아니라 표제(47:13aβ)에 대한 확약과 대구를 이루는 서명이 된다. 47:13에서 사용된 동사 어근 נחל은 48:29에서 명사형인 מנחלה로 나타난다. 이 동사 어근의 반복적인 사용은 47:13과 48:29 사이의 병렬적인 위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표제와 서명으로 이끌어진 본문이 앞서 살핀 대로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47:13aα)와 하나님 신언 정형구(48:29bβ)로 이뤄진 틀에 의해서 포괄됨으로 47:13과 48:29의 병렬적 위치와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증된다.

<47:13>

<48:29>



<표 4>

이 도표로부터 우리는 다음에 뒤따르는 형식적이고 교차 대구적인 묘사의 형태를 본문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10) מנחלה(48:29a)는 45:1; 47:14, 22 그리고 다른 사본과 역본에 따르면(3 Mss, LXX, 불가타) מנחלה를 오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מנחלה 대신에 מנחלה로 읽어야만 한다.

<표 5>

A	정형구/Formelsprache
B	이것이 그 경계이다/Dies ist die Grenz + 관계 문장/Relativsatz(רשׁא) + 12지파 이스라엘에게/an die zwölf Stämme Israels
X	경계와 분배 묘사/Grenz- und Anteilbeschreibung
B'	이것이 그 땅이다/Dies ist das Land + 관계 문장/Relativsatz(רשׁא) + 12지파 이스라엘에게/an die Stämme Israels
B"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다/Diese sind ihre Anteile
A'	정형구/Formelsprache

단지 여기서 B"의 언급만이 전체 본문의 형식적인 묘사에서 예외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B"의 요소는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B"은 내용적인 틀의 형성에 있어 분명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B'가 첫 번째 보고(47:15-20)의 결론을 형성하는 동안, B"는 두 번째 보고(48:1 이하)의 결론이 된다. 그래서 B"는 B'와 함께 B에 의해 도입된 전체 본문의 주제의 종결이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본문의 서술 구조로서의 틀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 6>

틀 47:13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표제(도입): 야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의 땅의 수여에 대한 확증
내용 47:14-48:28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땅의 수여에 대한 보고
틀 48:29	서명(종결): 야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의 땅의 수여에 대한 확증 נאם אדני יהוה

47:13-48:29의 ‘야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의 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47:13과 48:29를 통해 인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내부 틀

첫 번째 보고: 47:13-23에서는 땅에 대한 새로운 경계가 묘사된다. 경계 지역의 실제적인 리스트는 명사 문장들로 이뤄진 15-20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 리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절들은(47:14, 22-23) 이에 반해 동사 문장들로 이뤄져 있는데, 이 두 구절은 단어적, 내용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¹¹⁾ 14절과 22-23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어들의 반복이다. 이 단어들은 동일한 동사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나머지 절의 논의에서 21절은 생략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2)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언급된 동사의 어근은 **נָחַל**와 **נָחַל**이다. 이 두 동사 어근의 사용을 통해 14절과 22-23절 안에서 ‘땅의 수용에 대한 요구’라는 동일한 내용이 말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14절과 22-23절은 그래서 내용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22-23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특별히 외인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다. 이것이 이질적인 요소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 묘사의 본문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22aβ-23절은 14절과 22a절과 함께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들의 사용은 22a절과 22aβ-23절의 연결을 지지한다. 게다가 23절의 하나님 신언 정형구는 13절에 있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상응해서 놓여 있다. 이러한 상응은 다음을 명확히 고려하게 한다. 13-23절은 어떤 완결된 전체로써 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계 묘사는(14-23절) 13절과 함께 교차 대구의 형태로 완전한 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11) 2.1.2.와 2.1.3.을 보라.

<표 7>

13절	정형구/Formelsprache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표제/Überschrift	동사 문장
14절	땅의 수용에 대한 요구	
15절	도입/Einführung וזה גבול הארץ	명사 문장
15-20절	경계 묘사	
22-23절	땅의 수용에 대한 요구, 그리고 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특별한 명령	동사 문장
23절	정형구/Formelsprache נאם אדני יהוה	

정형구들은(13^{aa}절 그리고 23^{bβ}절) 경계 묘사를 포괄하고 땅의 수용에 관한 요구의 묘사들은(14절, 22-23절) 다시금 핵심 내용인 경계 지역 리스트를(15-20절) 위한 서술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틀을 형성한다. 그리고 나서 경계 지역들의 묘사는 자신만의 도입구로(וזה גבול הארץ) 시작된다.

두 번째 보고: 이 단락은 땅의 분배에 관해 명확히 언급한다. 각 지파에 따른 땅 분배의 실제적 리스트는 48:1-28에서 발견된다. 이 리스트는 ואלה שמות השבטים(48:1a)에 의해 도입된다. 이것의 뒤를 따라 북쪽의 경계 묘사가(48:1b) 언급되며, 명사 문장으로 형성된 지파별 분배에 관한 리스트가 48:1-7과(일곱 지파) 48:23-27에(다섯 지파) 나온다. 이 두 묘사 사이에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에 관한 묘사가(8-22절)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남쪽 경계에 대한 묘사를(28절) 끝으로 땅 분배의 실제적 리스트는 종결된다. 만약 이 두 보고가 동일한 서술 구조 속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다음의 질문은 불가피하다: 두 번째 보고의 틀은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가? 47:21과 48:29 사이의 단어 사용에 있어서의 관계와 문체적 특징이 먼저 관심을 끈다. 47:21에서 사용된 동사 어근 חלק는 단지 48:29에서만 반복 사용되고 있으며,¹²⁾ 47:21과 48:29는 공히 동사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명사 문장으로

12) 2.1.2.를 보라

간략히 기록된 실제적인 땅의 분배에 관한 보고는 동일한 동사의 어근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의미적으로도 연관성을 갖는 동사 문장 단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47:21은 그러나 실제로 47:21-23의 동사 문장 단락 안에 있다. 22-23절은 내용적, 단어적인 기반을 통해 47:14와 연결되고 경계 묘사의 틀이 된다. 만약 21절이 22-23절과 함께 경계 묘사의 아랫틀로써 이해된다면, 21절은 정형구에 의해(13^{aa}절, 23^{bβ}절) 그리고 땅의 수용에 대한 요구에 대한 확증이라는 내용을 통해 틀지어지는 경계 묘사의 서술 구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21절에서는 경계 묘사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전혀 다른 주제인 ‘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47:21은 단어적으로, 그리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내용적인 면에서 48:1-29에 연결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47:21은 동사 어근 קָח 의 사용을 통해 48:29와 병렬되어 놓이기 때문이며, 47:21의 내용이 48:1-28의 주제와 잘 조화되기 때문이다. 21절의 명령을 따라 קָח 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가 이후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기대는 48:1 이하의 묘사를 통해 충족된다. 따라서 48:1-28은 47:21 및 48:29와의 관련 안에서 읽혀야 함이 인식된다. 이러한 읽기에 있어 우리는 전체 보고를 이끄는 도입 정형구가 47:21의 바로 앞이나 47:21 안에 등장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선 경계 묘사의 구조와의 비교와 전체 본문의 서술 구조와의 비교에서 48:29에 있는 하나님 선언 정형구는 자신의 대응물(Pendant)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만약 47:21의 앞이나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text{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가 발견된다면, 두 번째 보고의 서술 구조를 첫 번째 보고의 그것과 같이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입 정형구의 삽입은 47:13과 48:29에 의해 생성되는 전체 본문의 틀 구조를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추가된 도입 정형구($\text{כֹּה אָמַר אֲדֹנִי יְהוָה}$)는 완전히 부자연스럽게 본문 안으로 맞추어 넣은 듯한 인상을 줄 것이다.¹³⁾ 이것은 다음을

13) 1.2.1.을 보라.

명확하게 한다: 48:29에 있는 하나님 신탁 정형구의 대응물은 그래서 47:13에서 찾아야만 한다.

본문 안에서 단지 한 번만 사용된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는 자신의 자리에서 전체 본문의 서술 구조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는(47:13aα) 전체 본문의 표제 구문과 함께(47:13aβ) 전체 본문의 윗틀, 첫 번째 보고의 윗틀, 그리고 두 번째 보고의 윗틀로 동시에 기능한다.

<표 8>

47:13	정형구/Formelsprache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47:13	표제/Überschrift: 아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수여에 대한 확약	동사 문장
47:21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 분배의 요구	
48:1	도입/Einleitung וְאֵלֶּה שְׁמוֹת הַשְּׁבָטִים	
48:1-28	명확한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	명사 문장
	1절 북쪽 경계	
	1-7절 지파들에 대한 분배 지역 리스트	
	8-22절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땅/Weihgabe	동사 문장
	23-27절 지파들에 대한 분배 지역 리스트	명사 문장
	28절 남쪽 경계	
48:29	서명/Unterschrift: 아웨에 의한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수여에 대한 확약	동사 문장
48:29	정형구/Formelsprache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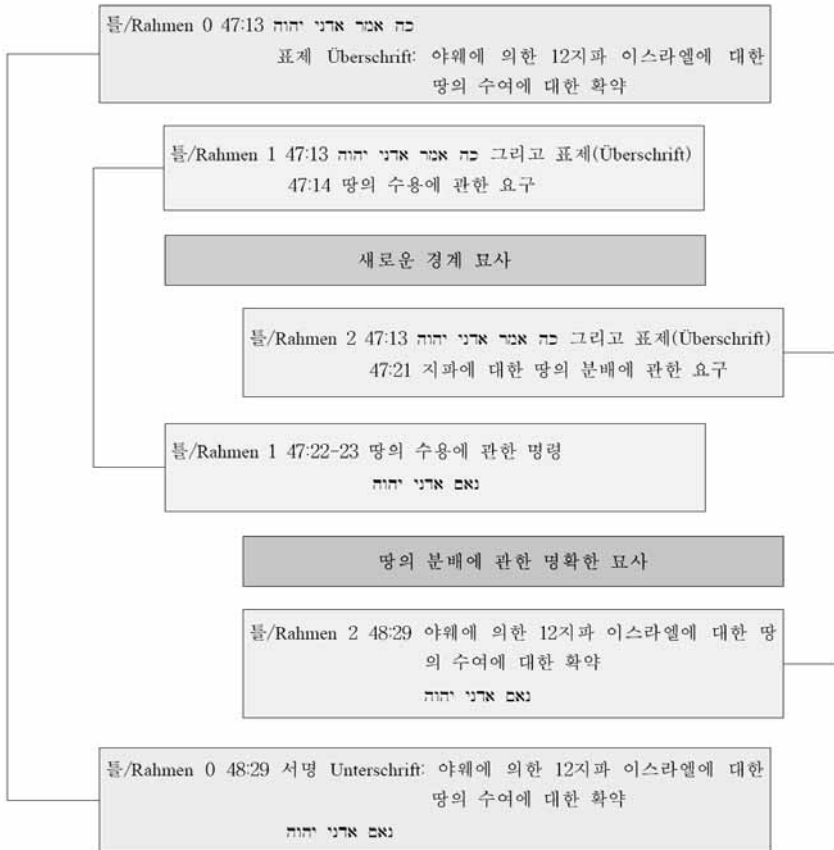
이러한 관찰로부터 다음의 것이 명확해진다: 1) 땅의 분배에 관한 명확한 묘사인 48:1-28은 47:13, 21; 48:29와 함께 읽혀져야만 한다. 2) 이러한 읽기를 통해 우리는 교차대구적인 서술 구조를 해당 본문에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

2.1.5. 종합

이상의 관찰들로부터 47:13-48:29의 문학적인 서술의 구조는 다음

과 같은 도식을 보여 준다.

<표 9>



이 도표로부터 몇몇 질문이 제기된다: 어떤 이유에서 틀 1은 틀 0 및 틀 2와 다르게 자신의 아랫틀에서 땅의 수여에 대한 확약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땅의 수용에 대한 명령을 언급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47:13-48:29의 문학 구조적인 특징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로 시작되고 하나님 신언 정형구로 종결되는

경계 묘사는 하나의 완전한 묘사이다. 그러나 이 묘사는 뒤따르는 땅의 분배 묘사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계의 묘사는 땅의 분배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기능을 전체 본문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확약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명령(요구)이 47:22-23에 등장한다. 이것을 통해 경계 묘사의 결론은 열려 있게 되고, 그 결론을 48:29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47:14, 22-23; 48:29의 동사 어근 **נָחַ**와 **נָל**의 사용과 관련된 단어적 연결과 내용적 연결, 그리고 47:20로부터 48:29로의 자연스런 연결 읽기는 앞선 논의의 또 다른 증거가 된다. 그 결과 47:13-48:29가 독립적인 테마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작은 보고의 결합임에도 단지 하나의 결론이(48:29) 전체 본문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전체 본문을 도입하는 47:13의 표제가 서술 구조에 있어 틀 1과 틀 2의 윗틀과도 결합되어짐에 상응된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다음의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된 문서였던 경계의 묘사와 땅의 분배 묘사는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되었다. 이 통합을 위해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서술의 틀이 전체를, 그리고 각각의 묘사를 이끌고 또한 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틀 안에서 틀 1과 틀 2가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가 두드러진다: 틀 2의 윗 틀인 47:21은 틀 1의 아랫틀인 47:22-23 앞에 놓여 있다: A'-a-b-a'-b'-A'. 이러한 맞물림에 의해 경계 묘사와 땅의 분배 묘사는 서로 강력히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 두 묘사는 정형구와 표제어, 그리고 서명으로 이뤄진 47:13과 48:29의 전체 틀 속에서 '야웨에 의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땅의 분배'라는 테마 아래 통합된다. 앞선 모든 문학 구조에 대한 관찰들로부터 그래서 다음의 것이 명확해진다: 47:13-48:29는 하나의 통일체로 읽혀야만 한다.¹⁴⁾

14) W. Zimmerli, *Ezechiel, Teilbad. 2: Ezechiel 25-48*, BK Bd. 1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1210;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 Kap. 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HTh Bd. 25 (Tübingen: Mohr, 1957), 95, 100.

2.2. 문학 비평적인 질문 제기

47:13-48:29를 하나의 통일체로 읽어야만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층들에 대한, 그리고 후기 첨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⁵⁾ 왜냐하면 어떤 텍스트에 있어 문학적인 통일성¹⁶⁾이라는 것이 저작의 단일성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⁷⁾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 47:13-48:29에서 서로 구분되는 구절들 사이에 어떤 부조화가 발견되는가?

-
- 15) 침멀리(Zimmerli)에 따르면(W. Zimmerli, *Ezechiel* 25-48, 1210) 47:13-48:29는 문학적인 층들과 몇몇의 후기 첨가들의 본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음에도 통일성 있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47:13-14와 48:29에 있는 땅의 분배와 관련된 명령을 통한 47:13-48:29의 아주 명백한 틀(Rahmu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 단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게제[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95, 100]도 동일한 입장에서 있다. 47:13-48:29가 “매우 복잡한 전승사적 관계들 안에” 서 있다 할지라도, 47:13-48:29는 “하나의 손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이 두 견해는 자신들의 근거로 문학적인 통일성을 붙들고 있다.
- 16) 우리는 여기서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일반적인 독일어 사용에 있어 어떤 문학의 ‘통일성(Einheit)’은 저작자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국문 연구의 영역에서도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 저작자의 통일성을 제외한 문서의 통일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일성’을 언급하는 것은 저작자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학적 통일성,’ ‘구조적 통일성,’ ‘주제적 통일성’ 등 형용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자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 17) 문학적인 통일성은 저작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위한 어떠한 전제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학적인 통일성은 마지막 편집자의 산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문학적인 비통일성도 여러 저작자에 의한 본문을 가리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성과 비통일성은 저작의 통일성 및 단일성과 복수 저작성을 결정하는 것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G. R. Berry, *The Authorship of Ezekiel* 40-48, JBL 34 (1915), 23ff., 25, 33ff.를 참조하라.

2.2.1. 정형구 47:13 $\alpha\alpha$, 23b β ; 48:29b β ¹⁸⁾

본문은 47:13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함께 시작되며 47:23의 하나님 신언 정형구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48:29에서 반복되는 하나님 신언 정형구에 의해 완전히 종결된다. 47:13-48:29는 정형구가 포함된 직접화법 단락에 의해(2인칭 복수: 47:13ff, 21ff; 48:29)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써 읽혀진다.¹⁹⁾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 바움케르텔(F. Baumgärtel)에 따르면 이 두 정형구가 하나의 텍스트에 함께 나오는 것이 의문스럽다.²⁰⁾ 그는 만약 하나님의 신탁이 선지자들이나 백성에게 명확한 명령이나 특별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신탁은 כה אמר יהוה에 의해 이끌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 נאם יהוה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נאם יהוה는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כה אמר יהוה에 의해 어떤 매우 명확한 명령이 이끌어지는 텍스트에서 נאם יהוה가 그 대응물으로써 나타날 경우는 없다.²¹⁾ 그러나 바움케르텔에 따른 정형구의 이러한 사용의 원칙은 우리의 본문에서는 어긋난다. 단지 45:18; 46:1, 16이 그의 이론에 상응된다. 그에 반해 44:27; 45:15; 48:29는 내용적으로 특별한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נאם יהוה를 가지고 있다.

43:18; 44:9; 47:13에서는 כה אמר יהוה가 사용된다. 이 정형구는

18) 47:13 $\alpha\alpha$, 23b β ; 48:29b β 의 אָרַי: 13 $\alpha\alpha$ 절에서 LXX⁹⁶⁷은 단지 κύριος로, 그에 반해 LXX^B는 마소라 본문과 동일하게(이것을 또한 페쉬타, 탈굴, 불가타와 비교하라.) κύριος θεός로 읽는다. 왜 LXX⁹⁶⁷이 여기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에스겔서의 다른 222곳) 모든 경우에 단지 κύριος로만 읽는지 우리는 증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19) 비교하라, H. F. Fuhs, *Ezekiel 25-48*, NEB 22 (Würzburg: Echter-Verlag, 1988), 260.

20) 참조하라, F. Baumgärtel, *Formel*, ZAW 73 (1961), 284 이하.

21) F. Baumgärtel, *Formel*, 285, 287.

명령들을 자신의 뒤에 이끈다. 그럼에도 **יְהוָה אֵלֵינוּ**는 이러한 명령의 내용들 안에서 **כֹּה אָמַר יְהוָה**의 대응물로서 등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1) 두 가지 정형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47:13-48:29은 구약에서 예외적 상황이거나; 또는 2) 정형구의 사용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43:18 이하; 44:9 이하; 47:13 이하의 법률적인 명령들에 정형구들이 덮어씌워졌다.

여기서 다음의 질문을 불가피하게 제기해야만 한다. 47:13-48:29은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Jahwerede)인가? 또한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써 법률적인 명령인가? 맨 먼저 문체적인 형태가 눈에 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텍스트가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면, 야웨는 분명 1인칭으로(Ich-Form)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야웨에 대한 1인칭의 사용은 단지 내용적으로 후기 첨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47:14와 48:11에서만 나온다. 그 외에는 야웨에 관해서 항상 3인칭으로 말하고 있다(48:9, 10, 14). 야웨가 스스로 자신의 담화에서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단지 정형구만이 본문이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써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두 번째로 47:13의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는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예언자 신탁 정형구가 사용되는 곳에서 그것에 앞서 언급되는 선지자에 대한 위임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 뒤를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이것에 의해 이끌리는 명확한 명령이나 지시가 1인칭-야웨 문체(Ich-JHWH-Stil)의 형태로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위임의 내용이 빠져 있다. 기대되는 1인칭-야웨-문체 또한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것이 의심스럽다: 47:13-48:29가 실제로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인가? 만약 본문이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인 **כֹּה אָמַר יְהוָה**가 여기에 잘못 위치한 것이거나 이 정형구는 의도적으로 본문의 법률적인 명령들에 추가된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

다. 이 두 가지의 고려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47:13-48:29의 도입부에 사용된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종결부에 사용된 하나님 신언 정형구는 편집적으로 추가되었다.²²⁾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인 47:13-48:29는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하나님 신탁 정형구에 의해서 야웨의 직접적인 말씀(Jahwerede)으로 옷 입혀졌다.²³⁾

2.2.2. 47:22-23

47:13-48:29에 있는 문서층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요구(47:13-14)와 경계 묘사(47:15-20)의 결론부를 형성하는 47:22-23을 먼저 다루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47:22-23 안에서 몇몇의 문체적이고 내용적인 불협화음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47:13-14, 21; 48:29에서는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가 찾아진다.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 어떤 특별한 것이다. 37:19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컨셉트는 단지 제도초안 단락(Verfassungsentwurf, 겔 40-48)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컨셉트가 드러나는 곳은 47:13-48:29의 본문이다. 이 컨셉트는 거의 땅의 분배와 관련된 보고와 함께 등장한다. 47:13-14,

22) 비교하라,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BZAW 287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0), 109; W. Zimmerli, *Ezechiel* 25-48, 1098, 1210: 이 두 학자는 바움케르텔(Baumgärtel)의 결과를 수용한다. 이들은 예언적인 정형구들은 내용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비교하라, J. Garscha, *Studien zum Ezechielbuch: Eine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von Ez 1-39*, EHS.T 23 (Bern/Frankfurt a.M.: Lang, 1974), 312-313.

그는 자신의 에스겔 1-39장의 편집 비평적 연구를 통해 כה אמר יהוה 특별히 첨가들과 편집적인 확장에 있어 사용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하게 편집된 장들에서 정형구들의 잦은 사용은 또한 그것을 지지한다. 그에 따르면 예언자 신탁 정형구(Botenspruchformel)는 편집적이고 후기 첨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יהוה נאם은 39:5, 20을 제외하고 원래적인 에스겔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3) F. Baumgärtel, *Formel*, 286.

21; 48:29가 그 대표적인 자리들이다. 외인에(גֵּרִים) 대한 땅의 분배를 통지하는 47:22-23도 12지파 이스라엘의 컨셉트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47:22-23의 보고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시 재건됨과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분배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외인을 위한 땅은 그들이 이미 머물고 있었던 지파들의 기업 안에 놓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는 **אֶרֶץ יִשְׂרָאֵ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47:22-23의 명령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47:22-23이 이러한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에 의해서 47:13-14, 21; 48:29와 연결됨을 인식할 수 있다. 47:13-14, 21; 48:29와 47:22-23의 연결이 단지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만을 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선 논의에서 이미 명확하다. 동일 어근 단어들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47:22-23은 47:13-14, 21; 48:29와 함께 단어적, 내용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47:13-14, 21, 22-23; 48:29에서 사용된 구문에 있어서도 2인칭 복수 직접 화법(Ihr-Stil)을 사용한 전형적인 직접 화법 문장들로서의 통일성을 통해 47:22-23과 47:13-14, 21; 48:29 사이의 굳건한 연결을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적이고 문체적인 연결과 관련해서 47:22a의 **וְהָיָה**가 주목된다. 47:22-23은 **וְהָיָה**에 의해 도입된다. 그리고 **וְהָיָה**를 따라 **וְנָס**의 히필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형이 뒤따른다. 이 동사는 명령문을 형성한다. 여기서 **וְהָיָה**의 사용은 매우 의문스럽다. 외인에 대한 땅의 분배와 관련된 명령의 도입부에 왜 **וְהָיָה**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앞서 언급된 땅의 경계 묘사와 갖고 있지 않는 **וְהָיָה**는 47:21-22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새로운 단락을 이끄는 도입 정형구인가? 외인에 대한 묘사인 47:22-23의 단락은 그래서 어떤 첨가인가?²⁴⁾ 어쨌든 **וְהָיָה**는 47:13-21과 47:22-23 사이의 어떤 “느슨한 연결(lose Einknüpfung)”²⁵⁾로 보인다. 이러한 “느슨한 연결”은 47:22-23이 47:13-14, 21; 48:29와의 언어적이고 문체적인

24) 비교하라,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98.

25) W. Zimmerli, *Ezechiel* 25-48, 1210.

연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47:13-48:29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이러한 인지는 47:22-23에 있는 외인에 관한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두드러진다. 이 명령은 단지 47:13-48:29에서만 낱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낱설다. 그래서 47:22-23은 יהיה에 의해서, 또한 자신의 독특한 내용에 의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7:13-21과 48:1-29는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 분배 요구를 알리며, 이곳에서 외인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47:22-23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며 함께 살고 있는 외인들은 12지파 이스라엘처럼 땅의 분배에 있어(תפלו אותה בנחלה לכם ולהגרים) 자신들이 정주하고 있던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획득한다(47:23ab^α).²⁶⁾ 이것으로부터 외인에 대한 땅의 분배에 관한 이 명령에 있어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가 전제 조건임이 명백히 드러난다.²⁷⁾ 왜냐하면 이러한 전제 조건 없이는 외인에 대한 땅의 분배는 실천에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47:22-23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내용 진술에 있어 논리적인 진행 순서가 뚜렷하다: 첫 번째로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분배가 행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인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된 땅 안에서 분배받는다.²⁸⁾ 47:22-23의 독립성과 내용적 독특성의 관찰로부터 생성된 진술의 논리적 순서는 본문의 생성과 관련된 정보를 또한 제공한다.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에 관한 본문은 그래서 어느 정도 외인에 대한 땅의 분배보다

26) 47:22-23외에도 구약에 גרים에 대한 몇몇 언급이 있다. 그러나 47:22-23과 같은 내용은 구약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참조하라, W. Eichrodt, *Der Prophet Hesekeiel, Kapitel 19-48*,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6), 420; H. F. Fuhs, *Ezechiel 25-48*, 261-262.

27) 참조하라,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183.

28) 참조하라, K. -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eiel(Ezechiel) Kapitel 20-48*. Mit einem Beitrag von T. A. Rudnig, ATD Bd 2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619;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179.

앞서 보고되었음에 틀림없다.²⁹⁾ 47:13-21과 48:1 이하의 진술의 진행은 47:22-23에 의해 중단된다. 만약 47:22-23이 생략된다면, 47:13-21과 48:1 이하는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해 읽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이해의 가능성이 제공된다.³⁰⁾

이상의 모든 내용적인 관계를 참작하여 우리는 다음을 인지할 수 있다. 47:22-23에 있는 명령은 48:1-28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의 실행을 전제한다. 그리고 48:1-28에 있는 땅의 분배는 47:15-20의 경계 묘사를 전제한다. 상호간의 이러한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논리적인 진술의 순서를 생성할 수 있다: 맨 먼저 경계 묘사(47:15-20)가 나온다. 그 다음으로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 묘사(48:1-28)가, 그리고 끝으로 외인에 대한 땅의 분배 묘사(47:22-23) 뒤따른다. 47:22-23은 내용적인 면의 관찰을 통한 분리로부터 47:13-21; 48:1-29와의 시간적인 분리가 확정된다.

여기서 다음을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논리적 진술 순서에 따라 늦은 시기로 분류된 47:22-23은 47:13-14, 21; 48:29와 언어적, 문체적, 사상적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47:22-23은 이러한 연결의 시도와 함께 47:13, 21; 48:29에서 언급된 명령의 확장과 변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³¹⁾ 47:22-23에 따르면 그 땅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도 분배된다. 이것은 원래적인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에 대한 명확한 확장과 변경이다. 이와 유사한 변경에 의해 완성된 확장은 구약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³²⁾ 이것은 변경에

29) 참조하라,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179.

30)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99; W. Zimmerli, *Ezechiel* 25-48, 1210;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619;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179; W. Rautenberg, “Zur Zukunftsthora des Hesekiel,” *ZAW* 33 (1913), 111-112.

31) 비교하라,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98; H. F. Fuhs, *Ezechiel* 25-48, 261-262;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619.

32) W. Zimmerli, *Ezechiel* 25-48, 1210.

의해 확장에 도달하기를 시도하는 47:22-23이 후기에 추가된 첨가물임을 또한 명확히 한다.³³⁾ 첨가된 47:22-23은 47:13-14, 21; 48:29와의 연결의 시도를 통해 전체 본문의 틀이 된다. 이 단락은 이 본문의 다른 틀, 특히 경계 묘사의 틀과 연결된다. 부가적인 구절인 47:22-23의 첨가와 함께 전체 본문은 견고한 문학적 구조를 가진다. 이 모든 근거들로부터 47:22-23은 첨가물으로써 삭제되지 않고 오히려 유지된다.

2.2.3. 47:13-14, 15-20 그리고 47:21³⁴⁾; 48:1-8, 23-28, 29

33) 비교하라,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98-99; W. Eichrodt,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9-48*, 420; W. Zimmerli, *Ezechiel 25-48*, 1210, 1218; H. F. Fuhs, *Ezechiel 25-48*, 261;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230 등.

첨가로서 삭제: A. Bertholet, *Die Stellung der Israeliten und der Juden zu den Fremden* (Leipzig: Akad. Verl.-Buhh. Mohr, 1896), 173 이하; A. Bertholet, *Hes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36), 166, 170. 그리고 G. A. Cook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ICC 26 (Edinburgh: Clark, 1936), 524-530. 문학 구조의 고려를 통한 유지: W. Rautenberg, “Zur Zukunftsthora des Hesekiel,” 112. 이에 반해 G. Fohrer(K. Galling), *Ezechiel*, HAT 1/13 (Tübingen: Mohr, 1955), 257-258; G. Fohrer(K. Galling), *Die Hauptproblem des Buches Ezechiel*, BZAW 72 (Berlin/New York: de Gruyter, 1952), 22는 21-23절을 삭제한다. 포리는 47:22-23이 첨가가 아니라 부가적인 주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1절을 22-23절과 함께 다루는데, 그래서 21절도 주석으로 삭제된다. 그에 따르면 원래적인 에스겔서는 48:1 이전에 종결된다. 즉, 47:13-20과 47:20 뒤로 옮겨져야 하는 45:1-8이 원래적인 종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48:1-29은 보충물이다. 또한 땅의 분배에 대한 명령은 48:1 이하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주석/ergänzende Glosse(22-23절)” 또는 “상세한 설명을 위한 주석/näherbestimmende Glosse(14절)”이 된다. 즉, 포리도 47:22-23을 48:1 이하보다 시간적으로 후에 위치시키고 있다. J. Herrmann, *Ezechiel*, KAT 11 (Leipzig u. a.: Deichert, 1924), XXXII. 또한 47:22-23이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분배의 본문 생성 이후에 생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34) 이에 반해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99; W. Zimmerli, *Ezechiel 25-48*, 1210;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619, 620. 그리고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179 등은 21절을 13-14절의 대응물(Pendant)로써 이해한다. 13-14절과 21절은 경계 묘사(15-20절)의 틀을 형성한다. 루드니히에 따르면 21절은 서술의 틀을

2.2.2.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질문할 수 있다: 47:22-23의 삭제를 통해 생성되는 47:13-21과 48:1 이하의 매끈한 연결은 47:13-48:29가 통일성이 있는 본문임을 증거하는가? 이러한 연결 때문에 발생한 논리적인 귀결은[분배될 땅의 경계 묘사(47:13-20) → 경계 지워진 땅에서의 땅의 분배 묘사(48:1-28)] 또한 47:13-48:29가 문학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본문임을 증거하는 것인가? 통일성 있는 묘사의 구조는 또한 본문의 통일성을 지지하는 것인가?³⁵⁾ 본문의 견고한 서술 구조와 앞선 여러 관찰들로부터 47:13-48:29는 문학 구조에서 통일성 있는 본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서술 구조의 통일성의 수용으로부터 생성된 문학적 통일성의 인정은 47:13-48:29를 에스겔 40-48장으로부터 독립된 단락으로서 분리하거나 삭제하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47:13-48:29가 진정 통일성을 가진 본문인지, 그리고 이 본문이 자신의 통일성에 의해 에스겔 40-48장으로부터 구분되거나 그것으로부터 삭제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땅의 분배 묘사는 땅의 경계 묘사를 전제한다. 47:15-20의 경계 묘사는 그래서 48:1-8, 23-28의 땅의 분배 묘사를 앞선다. 47:13-48:29에서는 어떤 인용 관계가 발견된다. 48:1ba는 북쪽 경계를, 48:28b는 남쪽 경계를 언급한다. 단은 북쪽의 가장자리에, 갓은 남쪽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기업을 수여받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을 묘사할 때 단의 북쪽과 갓의 남쪽 경계 묘사는

형성하기 위한 13-14절의 반복이다. 그러나 포리는 21-23절을 부가적인 주석으로 이해하고 삭제한다. 하지만 21절은 15-20절의 틀로써 이해할 수 없다. 21절은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를 묘사하는 48:1 이하와 함께 다루어져야만 한다. 14절이 15-20절의 표제가 되듯이 21절은 48:1 이하의 표제이기 때문이다. 문학적인 서술 구조의 관찰, 그리고 47:12와 48:1 이하의 직접적인 연결의 가능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읽기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참조하라, A. Bertholet, *Hesekiel*, 168; W. Eichrodt,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9-48*, 420. 이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21절을 48:1 이하와 연결시키고 있다.

- 35) 참조하라, 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 40-48)*, 100. 그는 본문의 문학적 구조로부터 47:13-48:29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생성된 것임을 주장한다.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계는 이미 47:15-17과 19절에서 언급되었다. 48:1b α 에 있는 북쪽 경계의 묘사는 47:15-17에 있는 북쪽의 경계 묘사보다 짧은데 상호 거명된 지명들로부터 명확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8:1b α 에 있는 짧은 북쪽 경계의 묘사는 47:15-17에 토대를 두고 있음에 틀림없다. 각 지명들은 47:15-17에서 언급되는 지명들로부터 선택적으로 인용되었다. 그런 까닭에 48:1b α 에서는 어떤 짧은 형태의 묘사가 발견된다. 48:28b의 남쪽 경계의 묘사는 이러한 관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표 10>

48:28b³⁶⁾

יהיה גבול מתמר מי מריבת קדש
נחלה על-הים הגדול

47:19

מתמר עד-מי מריבת קדש
נחלה אל-הים הגדול

47:19과 48:29b의 단어적이며 문체적인 밀접한 연결은 48:28b가 47:19로부터의 인용임을 증언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즉, 47:19가 48:28b를 인용)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47:15-20과 48:1-8, 23-28의 논리적인 진술의 순서에 따라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47:15-17의 더 긴 경계의 묘사와 48:1b α 의 짧은 경계의 묘사의 관계로부터 이성적인 대답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용구들의 관계들로부터도 우리는 47:15-20의 경계 묘사가 48:1-8, 23-28의 땅의 분배 묘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질문해야 한다. 이 논리적인 순서는 그리고 인용구들의 관계는 또한 47:15-20과 48:1-8, 23-28 사이의 어떤 시간적인 관계를 보여주는가? 48:1-8, 23-28에서 우리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만난다. 37:19³⁷⁾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שבטי ישראל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 1-39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36) 2 Mss와 LXX에 상응하여 מי 앞에 עד-가 첨가되어야 한다. 47:19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עד-מי가 확인된다. 또한 על-הים의 על은 אל로 바뀌 읽어야만 한다.

37) 참조하라,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65-71. 그에 따르면 37:15-19는 후기 첨가이다. 왜냐하면 에스겔 1-39장에서 지파 이스라엘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³⁸⁾ שבטי ישראל에 관한 언급은 단지 에스겔 40-48장의 제도 초안에서 발견된다. 이 단락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텍스트로 이해된다. שבטי ישראל에 관한 언급은 특별히 땅의 분배와 연관되는 텍스트에서 발견된다. שבטי ישראל에 관한 언급은 그래서 땅의 분배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 47-48장에서 찾을 수 있다(47:13-14, 21, 22-23; 48:1, 19, 23, 29, 31). 땅의 분배와 에스겔 48장과 관련되어 있는 45:8은 예외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을 인지할 수 있다:

שבטי ישראל에 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로부터 유래한다.³⁹⁾ שבטי ישראל에 관한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47:13-48:29에는 하나의 컨셉트가 뒤따라 나온다. 이 컨셉트에 따라 그 땅은 이미 헤쳐 되었지만,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12지파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른바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는 47:13-14, 21, 22-23; 48:8에서 언급되었고 48:1-8, 23-28에서 실현되었다. 47:13-14, 21; 48:29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은 지파들에게 분배된다(48:1-8, 23-28). 48:1-8, 23-28에서는 12지파들의 이름들이 언급된다. 이 컨셉트에 의해서 47:13-14, 21, 22-23; 48:29가 48:1-8, 23-28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은 제외될 수 없다. 그러나 47:15-20은 다르다: 그 단락의 표제인 13-14절은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3-14절은 편집적인 작업을 통해 생성된 구절로서 증명될 수 있다. 그러면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는 15-20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15-20절의 경계 묘사는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고려 없이 단지 경계의 기준 지역들만을 언급한다. 여기서 질문이 야기된다: 15-20절의 경계 묘사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인식 없이 독립적인 것인가?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옳바르지 않다. 경계 묘사는 분배 묘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5-20절의 경계의 기준 지역의 리스트는 땅의 분배라는 이후의 언급을

38) 참조하라, W. Zimmerli, *Ezekiel 25-48*, 1212. Dtjes.에 있어 지파 이스라엘은 단지 한 번, 매우 형식적으로 종의 노래(עבר-Lied 49:6)에서 등장한다.

39) 참조하라, W. Zimmerli, *Ezekiel 25-48*, 1212.

또한 역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는 15-20절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고려는 다음의 주장을 지지한다: 47:15-20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생성된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를 포함하는 48:1-8, 23-28의 단락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금 47:15-20과 48:1-8, 23-28의 차이를 언급해야만 한다. 48:1-8, 23-28의 땅의 분배의 묘사는 확실히 비현실적이다. 이 묘사는 분배되는 땅의 폭의 정도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파의 지파원의 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땅의 경계는 지파들과 지파들 사이에서 항상 직선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경계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은 분배될 수 없다(피차없이 /einer wie der andere 47:14bα). 48:1-8, 23-28은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다만 이상적으로 계획된 땅 분배의 묘사가 된다. 그러나 47:15-20은 48:1-8, 23-28과 다르게 실제 지명들을 사용한다. 이 지명들은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47:15-20은 48:1-8, 23-28로부터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다.⁴⁰⁾

40) 47:15-20과 48:1-8, 23-28의 관계 설정에 있어 다른 측면의 고려도 있다. 이 고려는 47:15-20에 있는 경계의 묘사는 48:1-8, 23-28에 있는 땅의 분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찰로부터 시작한다[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620, 623-624]. 48:1-8, 23-28의 명령은 47:13-14, 21; 48:29와 함께 그 땅은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함을 보고한다(47:14a 피차없이/Jeder wie sein Bruder).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47:15-20을 통해 경계 지워진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분배의 묘사는 언급된 땅의 남쪽이 북쪽보다 더 넓다는 지형적인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파별로 나누어진 지역의 면적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치더라도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비옥함의 현저한 차이는 공평한 땅의 분배에 관한 이상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평한 땅의 분배라는 구상과 47:15b-20에서 언급되는 미래적인 영토의 범위에 대한 생각은 서로 상충하지 않음” 명확해 보인다[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624]. 이러한 고려에 의해 48:1-8, 23-28은 47:15-20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48:1-8, 23-28은 47:15-20보다 후기 본문으로 생각된다(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앞서 언급된 모든 고려들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47:15-20은 땅 분배의 전제조건이다. 48:1-8, 23-28의 땅의 분배 묘사는 47:15-20에서 경계 정해진 땅 안에서 실행된다. 그러나 47:15-20은 47:13-14, 21, 22-23; 48:1-8, 23-28, 29에서 찾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생한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47:15-20은 내용적으로, 그리고 사고에 있어 48:1-8, 23-28을 앞선다.⁴¹⁾ 그리고 47:15-20의 경계의 묘사는 48:1-8, 23-28과의 결합을 통해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를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3. 나가는 말

617 이하;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228. 또한 유사하게 G. Fohrer, *Die Hauptproblem des Buches Ezechiel*, 77; G. Fohrer, *Ezechiel*, 259 이하].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필자의 생각에 47:15-20과 48:1-8, 23-28 사이의 문서의 관계 확정을 위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에스겔 40장 이하의 성전의 제도 묘사에서 높이의 척도와 사용될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묘사에 따라 성전은 건설될 수 없다. 성전 재건의 묘사는 그래서 비현실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 묘사는 그 결과 신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땅의 분배 묘사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실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원래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오히려 신학적인 땅의 분배 본문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경계의 묘사와 비현실적인 땅의 분배의 묘사가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 41) 참조하라,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183. 그는 본문의 내용면에 논리적인 서술 순서와 관련해서 47:13-21에 있는 경계의 묘사 리스트가 제도 초안 (Verfassungsentwurf)에 있는 모든 땅과 관련된 본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G. Fohrer, *Die Hauptproblem des Buches Ezechiel*, 77은 땅의 분배 방식과 관련된 본문의 후기 사상으로부터 발생했음을 언급한다. G. Fohrer, *Ezechiel*, 258-259에 따르면 45:1-8은 원래 47:13-23 뒤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45:1-8은 47:13-23을 내용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45:1-8은 시기적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의 더 좋은 자리로 옮겨졌고, 그 후 48:1-29가 47:13-23에 대한 단순한 첨가로 덧붙여졌다. 결론적으로 포러와 루드니히는 경계의 묘사와 땅의 분배 묘사를 명확히 구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제까지의 확언은 다음의 견해를 이끈다: 에스겔 47:13 이하는 서술 구조면에서 통일성 있는 구성물이다. 47:13 이하의 구조적인 형태는 이 본문의 고리 구성을 명료화한다. 이 본문은 예언자 신탁 도입 정형구와 하나님 신언 정형구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을 이끄는 표제와 그것을 종결하는 서명에 의해서 틀 지워진다. 이러한 틀 안에는 두 개의 묘사가 들어 있다. 먼저는 새로운 땅의 경계 묘사이고, 다음은 땅의 분배에 대한 명확한 묘사이다. 이 묘사들은 각각의 문학적이고 구조적인 완결성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관찰되어야 함에도, 서술 구조의 통일성에 의해 전체로 읽혀지고 또 관찰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위한 경계 묘사의 종결 부분과(22-23절) 땅의 분배 묘사의 도입 부분의(21절) 맞물림 배치의 방법이 인상적이다. 땅의 분배 묘사의 도입 부분은 땅의 경계 묘사의 아랫틀 앞서 놓여 있다(A-BA'-B'). 두 묘사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통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본문을 형성하고 있다.

본문의 이러한 확인된 문학적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본문의 성장(Textswachstum)도 확인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47:15-20은 땅의 분배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48:1-8, 23-28에 묘사되어 있는 땅의 분배는 47:15-20에서 경계 정해진 땅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7:15-20은 내용적으로 48:1-8, 23-28의 단락보다 앞선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47:15-20은 48:1-8, 23-28의 단락보다 앞선다. 왜냐하면 48:1-8, 23-28 안에서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컨셉트는 시간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후기에 등장하는데 경계의 묘사는 이 컨셉트를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분배 묘사가 후대에 경계의 묘사에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첨가를 통해서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는 경계의 묘사에 덧입혀졌다. 또한 동일한 컨셉트가 다시 한 번 땅의 분배의 묘사에 의해 확약되었다. 47:15-20에 의해 경계 정해진 이 땅은 12지파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어야만 한다(47:13-14, 21; 48:29).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각각의 지파에게 하나의 구역이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된다

(48:1-8, 23-28). 동시에 정형구들이(47:13 $\alpha\alpha$ 와 48:29b β) 이 본문을 야웨의 직접적인 신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첨가된다. 이상의 견해에 따라 다음의 것이 확증될 수 있다: 47:15-20; 48:1-8, 23-28은 전체 본문 중에서 기본 문서(Grundtext)이다. 47:15-20의 경계 구역의 지명 리스트는 이미 이전에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이 리스트는 새로운 땅의 분배를 묘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러나 경계의 묘사에 사용되기 위해 이 근본적인 리스트는 지금의 형태로 수정되어 받아들여졌다(47:15-20). 이러한 편집에 의해 땅의 분배 묘사는 경계의 묘사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었고(48:1-8, 23-29), 동시에 북쪽과 남쪽의 경계 묘사도 47:15-17, 19로부터 인용하였다. 이로 인해 이 두 보고는 유사한 설명의 구조와 인용의 관계를 통해 서로 매우 가까이 연결되어진다. 부가적으로 이 두 보고는 47:13-14, 21; 48:29를 통해 다시 한 번 강하고 튼튼하게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 두 묘사는 다시 정형구에(47:13 $\alpha\alpha$ 와 48:29b β) 의해서 틀 지워진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연히 다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 땅의 분배 묘사는(47:13-21; 48:1-29)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묘사로 더는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경계의 묘사는 땅의 분배 묘사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며, 땅의 분배 묘사는 경계 묘사의 논리적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땅의 분배 묘사는 경계 묘사 없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며, 게다가 땅의 분배 묘사 없는 독립적인 경계의 묘사는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기본 문서에 예물로 드릴 땅의 상세한 묘사가(48:8b α^* -10, 13-22) 48:8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된 묘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석의 형태로 첨가되었다. 마지막으로 47:22-23은 첨가로써 덧붙여졌다. 47:22-23의 명령은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의 실행을(48:1-28) 전제한다. 왜냐하면 외인은 그들의 기업을 이미 12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으로부터 분배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47:22-23은 뒤에 놓인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도 이 경우에 상응한다. 47:22-23에 의거해서 이 땅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뿐

만 아니라 외인에게도 분배된다. 이것은 근원적인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에 대한 명확한 확장과 변경이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생성된 확장은 구약 안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47:22-23은 매우 늦은 첨가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후기 첨가로서 삽입된 단락들과 47:22-23의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는, 이러한 후기 첨가를 통해 원래적인 본문의 문학적 구조가 방해받지도 부서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지기 때문이다. 12지파-이스라엘-컨셉트를 포함하고 있는 47:22-23을 통해 이 부분은 다른 틀과 같이 경계 묘사의 틀로써 기능한다. 그리고 47:22-23은 두 개의 보고를 새로운 땅의 수여라는 주제 아래에 서로 맞물리게 연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탁 정형구를 넘겨받았다.

이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에스겔 47:13-48:29는 어떤 성장의 경과를 통해 생성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경과를 통해 문학적인 통일성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유지, 강화된다. 이러한 성장의 경과를 통해 몇몇의 신학적인 컨셉트는 확장되었고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과 변경은 여전히 본문의 기본 노선의 범위 안에서 발견된다(주제적 통일성의 유지).

<주요어>

에스겔, 제도 초안, 형성사, 정형구, 문학적 통일성, 통합 읽기

<Key word>

Ezekiel, Verfassungsentwurf, compositional history, formal-speech, literacy unity, synthetic reading

* 접수일 2013년 2월 12일, 수정일 2013년 2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7일

참고문헌

- 박호용, 『야웨 인지 공식』,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구약논단』 18:2 (2012), 58-85.
-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신학과 선교』 7 (2003), 82-107.
- Baumgärtel, F., *Formel*, ZAW 73, 1961, 276-290.
- Berry, G. R., *The Authorship of Ezekiel 40-48*, JBL 34, 1915.
- Bertholet, A., *Die Stellung der Israeliten und der Juden zu den Fremden*, Leipzig: Akad. Verl.-Buhh. Mohr, 1896.
- Bertholet, A., *Hes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36.
- Cooke, G.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ICC 26, Edinburgh: Clark, 1936.
- Eichrodt, W.,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9-48*,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6.
- Fohrer, G., (K. Galling), *Ez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55.
- Fohrer, G., *Die Hauptproblem des Buches Ezechiel*, BZAW 72, Berlin/New York: de Gruyter, 1952.
- Fuhs, H. F., *Ezekiel 25-48*, NEB 22, Würzburg: Echter-Verlag, 1988.
- Garscha, J., *Studien zum Ezechielbuch: Eine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von Ez 1-39*, EHS.T 23, Bern/Frankfurt a. M: Lang, 1974.
- Gese, H.,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 Kap. 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HTh Bd. 25, Tübingen: Mohr, 1957.
- Herrmann, J., *Ezekiel*, KAT 11, Leipzig u. a.: Deichert, 1924.
- Leem, Si-Young,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 47f,” Dr. Theol. Dissertation, Heidelberg University, 2010.
- Pohlmann, K. -F.,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kiel) Kapitel 20-48*. Mit einem Beitrag von T. A. Rudnig, ATD Bd. 2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Rautenberg, W., “Zur Zukunftsthora des Hesekiel,” ZAW 33, 1913, 92-115.

- Rudnig, T. A.,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BZAW 287,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0.
- Zimmerli, W., *Ezechiel, Teilbad. 2: Ezechiel 25-48*, BK Bd. 1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초록>

에스겔 47:13-48:29의 문학적 통일성으로 본 형성사 연구

임시영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본 논문은 에스겔서가 ‘이어쓰기’(Fortschreibung)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침멀리(W. Zimmerli)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렇게 형성된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를 ‘통합체’로 읽어야 함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을 도입하고 종결하는 ‘신탁 정형구’(Einleitungsformel des Botenspruches)와 두 개의 ‘신언 정형구’(Gottesspruchformel)가 문학적으로 완벽한 틀 구조를 형성한다는 입장을 전개하고, 각 본문의 단락들에 등장하는 동사들의 분포와 문체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각 본문 단락의 도입 구문과 종결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며, 더 나아가 본문 단락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살핌을 통해 다음을 주장한다: 본문은 완벽한 문학적 구조 안에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읽어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통일체로 읽는다는 것이 본문의 역사적 성장의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지는 않음을 밝힌다. 그래서 앞선 연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본문의 문학적 구조가 보여주는 각 본문 단락들의 생성과 구조의 형성을 유추하는 것을 통해 본문의 형성(성장)의 역사를 살핀다. 즉,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기본층과 성장층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장을 통해 오늘의 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정도는 전체에 비해 적은 부분에 해당하며, 성장층은 앞선 본문의 기본적인 문학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및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은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 13절 이하는 다양한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본문 전체의 문학적 및 신학적 통일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본 논문은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의 본문은 형성되어진 전체(ein kompositionelles Ganze)로써 통합적으로 읽혀져야만 한다.

<Extrakt>

Eine Studie über die Kompositionsgeschichte von Ez 47:13-48:29 im Hinblick auf die literarische Einheit des Textes

Dr. Theol. Si-Young Leem
(Dozent an der Sung-Kyul Universität)

Diese Studie geht darum, dass Ez 47:13ff. ein Gebilde sind, das die literarische Einheit trägt. Der strukturelle Aufbau von 47:13ff. verdeutlicht die Ring-Komposition dieser Teile. Sie werden zum einen durch die Einleitungsformel des Botenspruches sowie die Gottesspruchformel und zum anderen durch die Über- und Unterschrift eingerahmt. In diesen Rahmenstücken finden sich stilistisch und inhaltlich eng verbindende Verhältnisse(Wiederholung der aus der gleichen Verbalwurzel stammenden Worte sowie Verbalsätze gegen die Nominalsätze). In diesem Rahmen finden sich zwei Beschreibungen: Eine ist eine neue Grenzbeschreibung und die andere ist eine genaue Beschreibung der Landanteile. Obwohl sie wegen der literarischen und strukturellen Vollkommenheit der beiden Beschreibungen voneinander getrennt betrachtet werden können, lassen sie sich über eine Gemeinsamkeit verknüpfen. Denn während die neue Grenzbeschreibung eine Voraussetzung für

die Landverteilung darstellt, ist die Landverteilungsbeschreibung die Schlussfolgerung der Grenzbeschreibung. Diese enge Verknüpfung der beiden Beschreibungen in 47:13ff. wird auch die Betrachtung der Struktur belegt. Die beiden Beschreibungen zeigen zudem – ebenso wie der gesamte Text – eine Rahmenstruktur. Durch dieses Verfahren wird die literarische Einheit des Textes verbindlich herbeigeführt. Trotz dieser festgestellten literarischen Einheit des Textes lässt sich aber ein ausdrückliches Textswachstum feststellen. Zunächst finden sich drei literarische Schichten: die Grenzbeschreibung 47:15-20, die Landverteilungsbeschreibung 47:13-14, 21; 48:1-8, 23-28, 29 und die Weihgabebeschreibung 48:9-22. Daneben finden sich noch einige Bearbeitungen(48:9, 21b, 22) und Nachträge(47:22f. und 48:11f.).

Daraus resultiert die Annahme, dass Ez 47:13-48:29 durch einen Wachstumsprozess entstanden sein muss. Durch diesen Wachstumsprozess wurde die literarische Einheit bzw. Geschlossenheit des Textes aber nicht zerstört, sondern bewahrt (ein kompositionelles Ganze). Durch ihn wurden einige theologische Konzepte verbreitet und abgeändert. Aber diese Verbreitung und Abänderung befinden sich noch innerhalb der Grundlinie des Textes. Aus all diesen Beobachtungen wird m. E. also deutlich, dass der Text 47:13-48:29 als ganze Einheit bzw. kompositionelles Ganzes gelesen werden muss.